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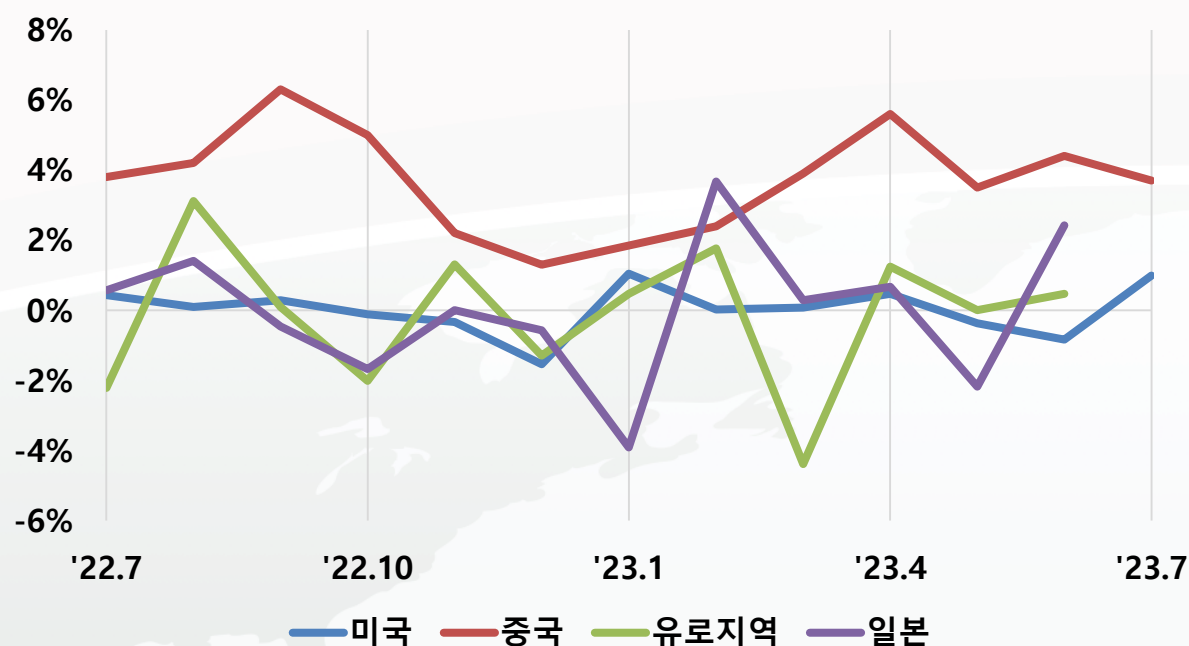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미국 견조한 성장에 따른 고금리 지속 전망, 중국 경기둔화 심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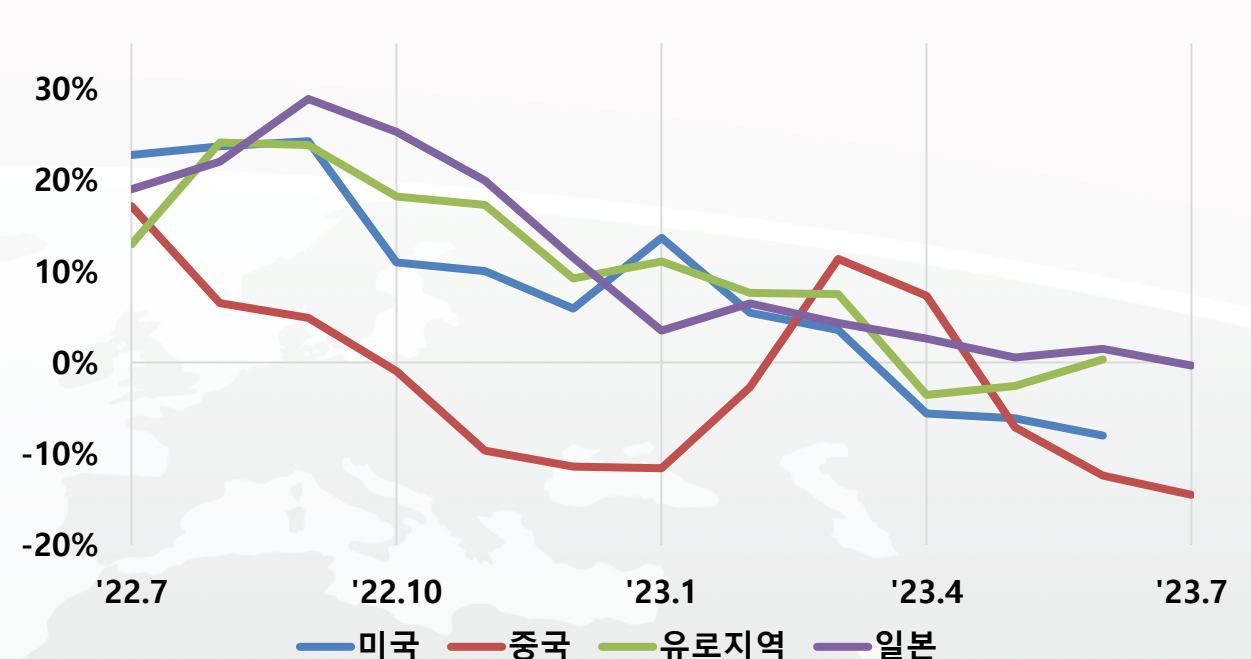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소비, 생산, 고용 모두 견조세 유지**
 - 2분기 성장률 2.4%(전기대비 연율) 기록, 7월 산업생산(+0.99%) 3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, 소매판매(+0.7%)는 4개월 연속 증가세
 -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+18.7만명) 전월(+18.5만명) 대비 증가, 실업률(3.5%)은 2개월 연속 하락
 -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 +3.2%로 전월(+3.0%)대비 상승, 근원물가 상승률은 +4.7%로 전월 대비 0.1%p 하락
- **(중국) 소비, 투자, 수출 등 전반적인 부진 속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 등 부동산 시장 위축 심화**
 - 7월 산업생산 증가율 +3.7%(전년동기 대비)로 전월(+4.4%) 대비 하락,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+3.4%(전년누계비)로 지속적 하락
 - 7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.5% 증가 전월(3.1%)대비 하락,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.5%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역성장
- **(유로존)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이 소폭 회복되었으나 부진 지속**
 - 2분기 성장률 0.3%(전기비)로 2분기만에 플러스 성장, 6월 산업생산 증가율 0.5%로 소폭 회복
 -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.3%로 전월(5.5%)대비 하락, 유로존 7월 제조업 PMI는 42.4로 전월(42.7) 대비 하락
- **(일본) 엔저가 확대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%대로 안정세 유지**
 -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.4% 증가했으나, 7월 수출(엔화 기준)이 전년동기 대비 0.3% 감소하며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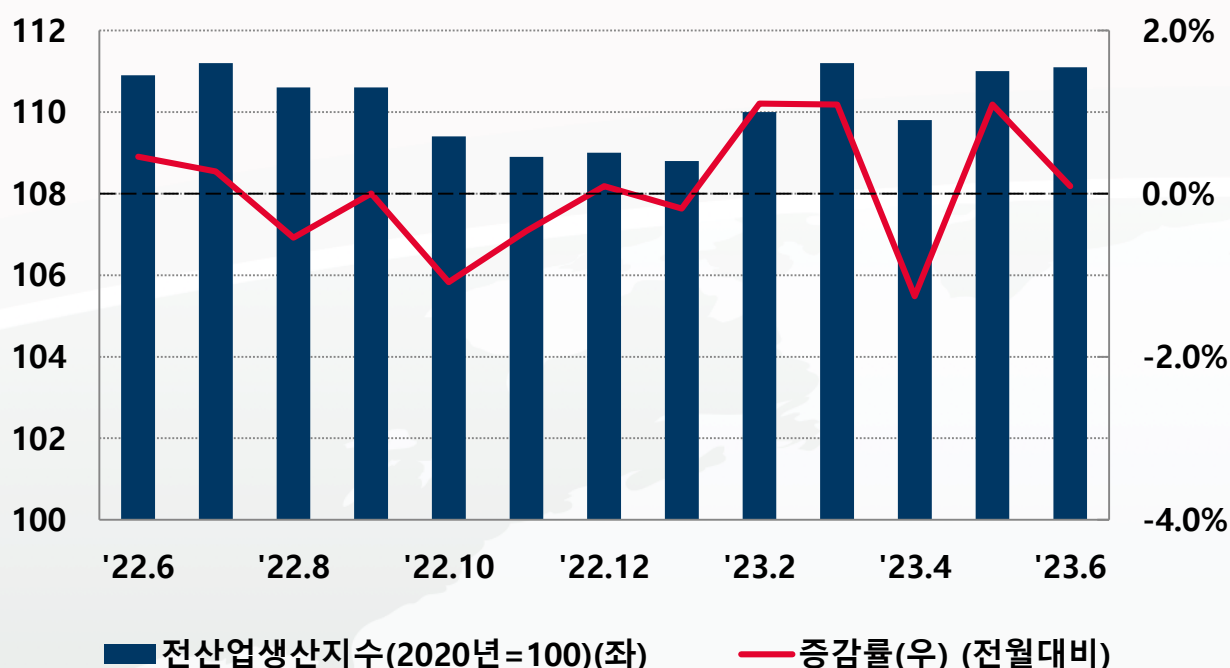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생산은 서비스업 증가, 경기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상승

- (생산)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, 건설업에서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늘어 전월 대비 0.1% 증가
 - (광공업 : $\Delta 1.0\%$) : 반도체(+3.6%) 등에서 늘었으나, 자동차($\Delta 12.9\%$), 석유정제($\Delta 14.6\%$) 등에서 감소
 - (서비스업 : +0.5%) : 보건·사회복지(+3.2%) 등에서 줄었으나, 금융·보험(+3.5%), 예술스포츠여가(+5.7%) 등에서 증가
- (경기)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8.8p)는 재고 대비 출하 증가율, 코스피지수, 수입물가 대비 수출물가 등이 상승해 전월대비 03p 상승(기준치 100)

■ 수출 동향 :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및 수출물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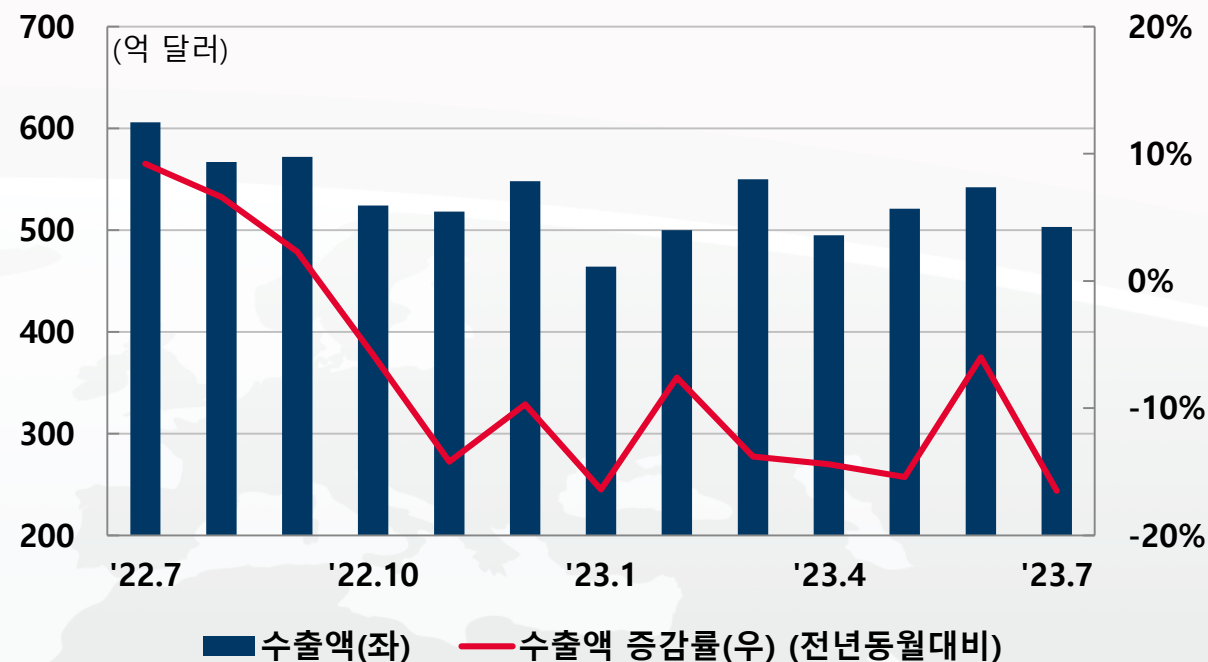
- 7월 총수출은 50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16.5\%$), 무역수지(+16.3억 달러)는 흑자 지속
 - 반도체 업황 부진, 유가 하락으로 인한 관련 수출물가 하락 등으로 중국($\Delta 25.1\%$), 아세안($\Delta 22.8\%$), 미국($\Delta 8.2\%$) 등 감소
 - 자동차(+15.3%), 일반기계(+3.2%) 등은 증가, 반도체($\Delta 33.6\%$), 석유화학($\Delta 24.5\%$), 석유제품($\Delta 42.3\%$) 등은 감소 지속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자료 : 통계청

수출 추이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통관기준)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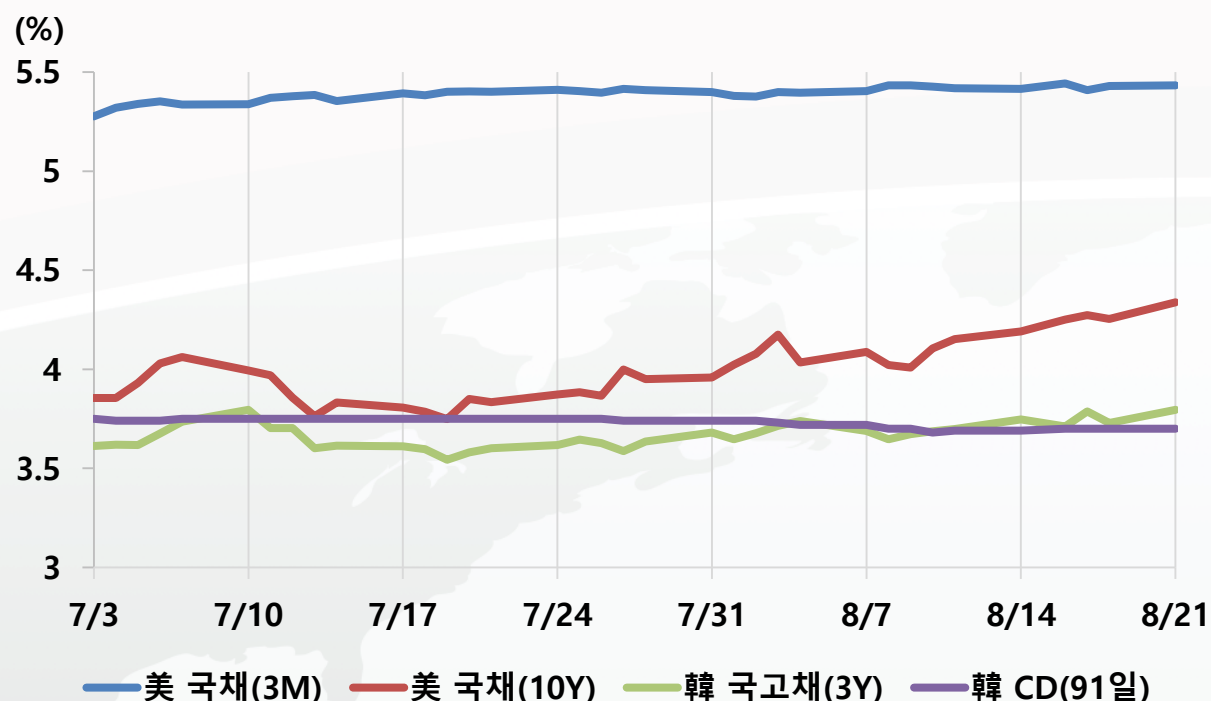
■ 금리 : 미국의 고용 등 경기지표의 안정세에 따른 고물가 지속 가능성으로 상승세 지속

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9월 미연준의 낮은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고용지표 안정세, 소매판매 견조세,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지속 가능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.33% 기록
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미국채 수익률에 동조해 상승했으나 국내 경기 부진으로 상승폭이 제한돼 3.79% 기록

■ 환율 : 미국채 수익률 상승, 중국 경기 악화 등으로 미달러화 강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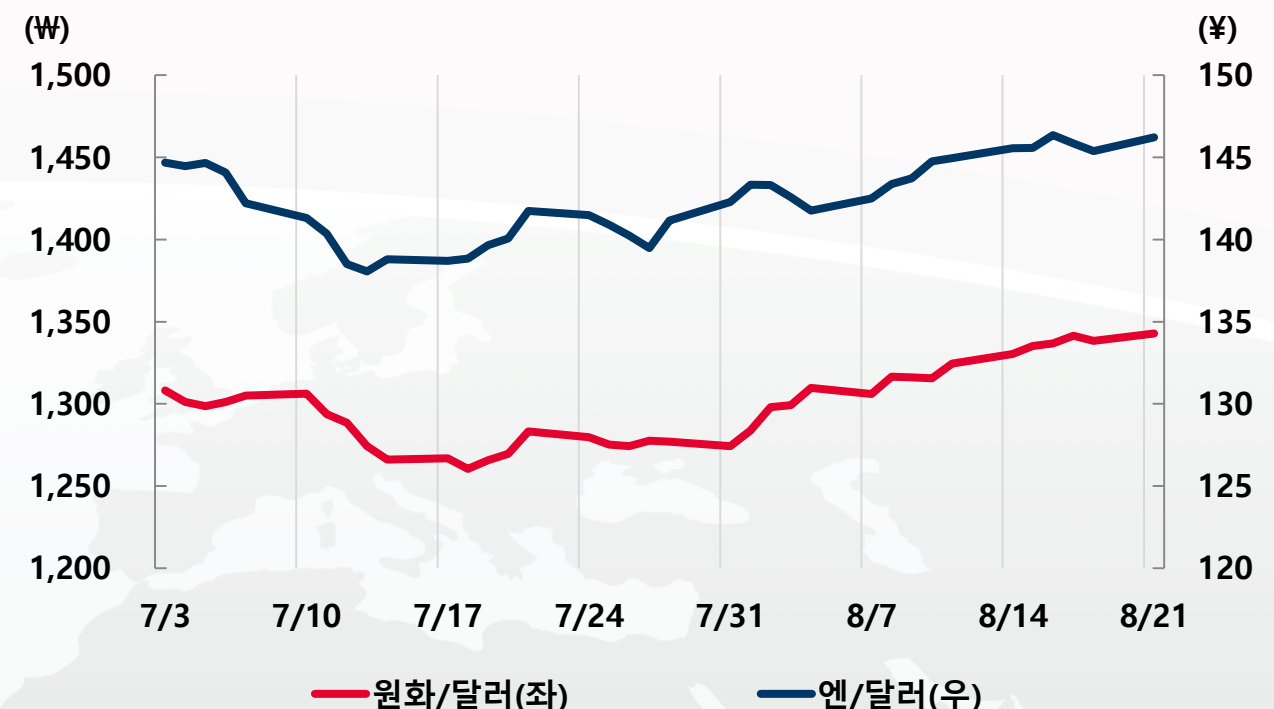
- (원/달러 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,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 등 경기악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국내경기 악화 가능성 등으로 1,343원/달러(8/21) 수준까지 상승
- (엔/달러 환율) 엔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글로벌 강세로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는 금융완화의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유지하며 146엔/달러(8/21)로 상승, 한편 원/100엔 환율은 920원/100엔 수준으로 상승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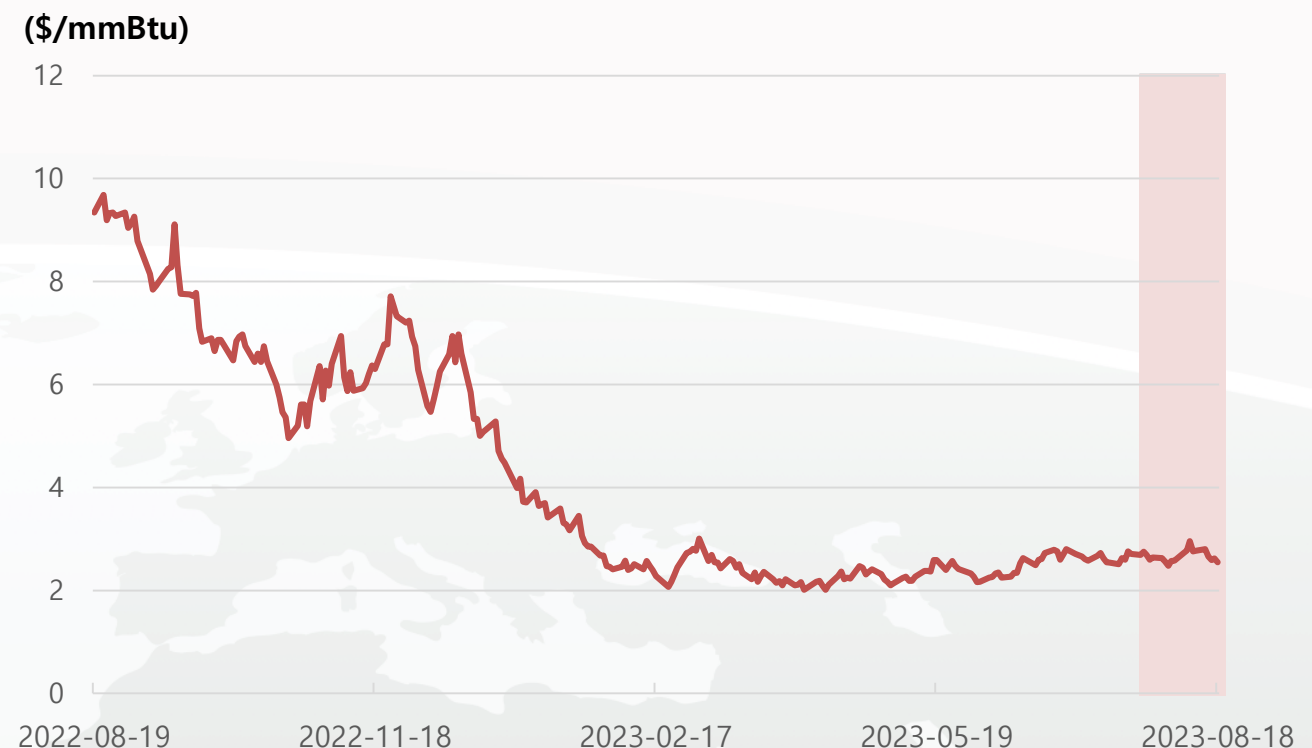
■ 유가는 수급 타이트로 급등,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불안 우려로 상승 이후 재하락

- (원유) 7월 이후 사우디, 러시아 등 감산규모 확대, 여름철 수요증가 기대감, 원유재고 감소세 등 수급 타이트로 유가 상승, 7월 중순 배럴당 80달러선 돌파 이후 8월 중순 80달러 후반대로 급등(두바이유 \$89.03/bbl, 8/10)
 -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 및 실물지표 부진 등 중국 원유 수요둔화 우려가 확대되고,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며 8월 중순 이후 소폭 하락하여 8.18일 배럴당 85.41달러 기록
- (천연가스) 호주 가스 생산시설 파업 가능성에 따른 공급 우려로 8월 들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mmBtu 3달러에 육박(NYMEX \$2.96/mmBtu, 8/9) 했으나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 목표치 조기 달성 등으로 8월 중순 2달러 중반대로 하락
 - 8.8일, 호주 Gorgon LNG와 Wheatstone LNG의 파업 가능성이 알려지며 유럽 TTF가격이 \$14/mmBtu에 육박하는 등 공급불안 우려 확대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, 이후 8.16일 유럽 가스 저장률이 목표치의 90.1%에 도달하며 공급 불안 해소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7월 세계 발주량 및 한국의 수주 양호한 실적 기록

• 7월, 메탄올 추진 대형컨테이너선의 대량 발주 등으로 신조선 발주량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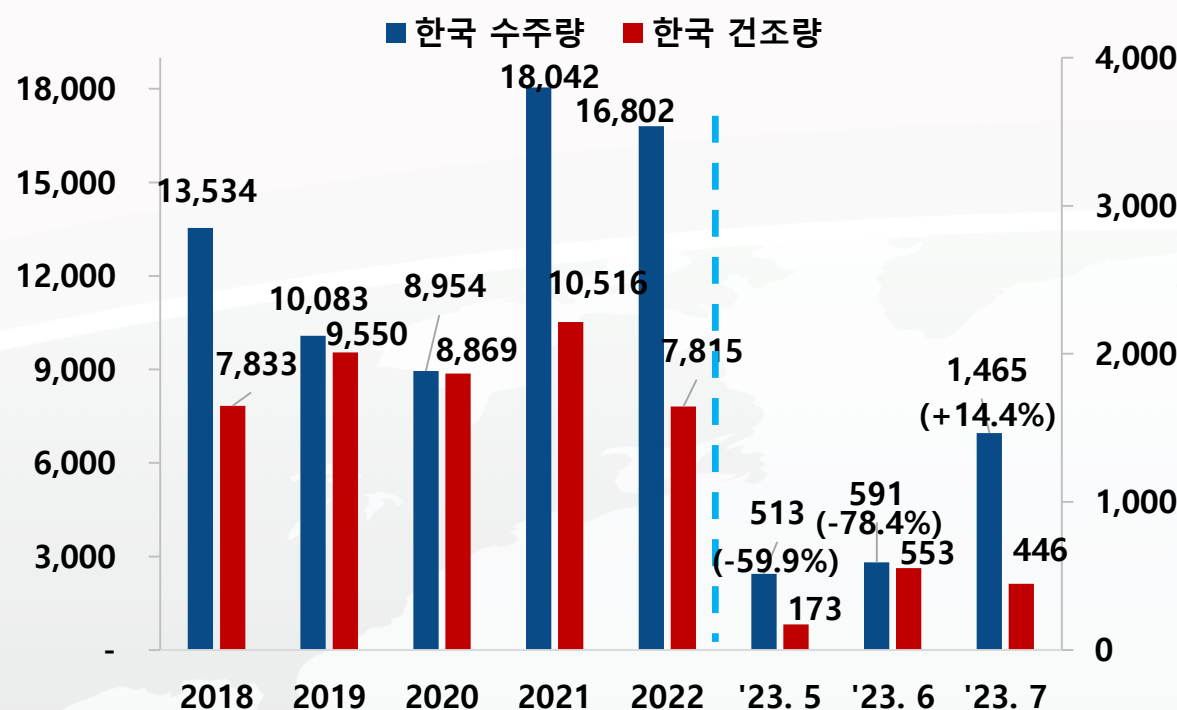
- 7월 세계 발주량은 334만CGT(전년동월 대비 +22.2%), 7월 누적 발주량은 2,312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24.6%)
- 7월 한국 수주량은 146만CGT(전년동월 대비 +14.4%), 누적 수주량은 694만CGT(전년동기 대비 △40.6%)
- 7월 한국 수주액은 45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44.3%), 누적 수주액은 202.0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34.1%)
- 7월 발주 시장은 대만 에버그린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이 전체의 43%를 차지
- 한국은 에버그린 발주 24척 중 16척을 수주하며 양호한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그 외에 중대형 탱커, 대형 LPG선 등을 소량 수주

• 7월 선박 수출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

- 7월 수출액은 17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△30.9%)로, 7월 누적 수출액은 109.6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+1.7 %)
- 일감확보량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여전히 생산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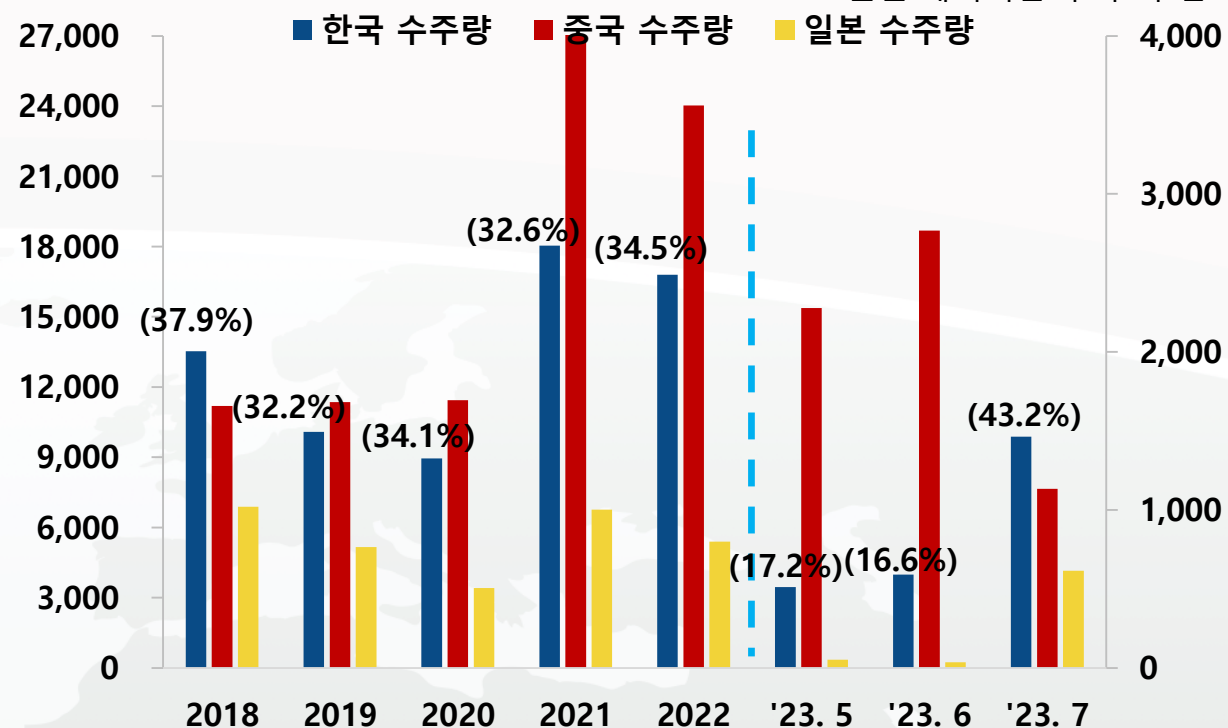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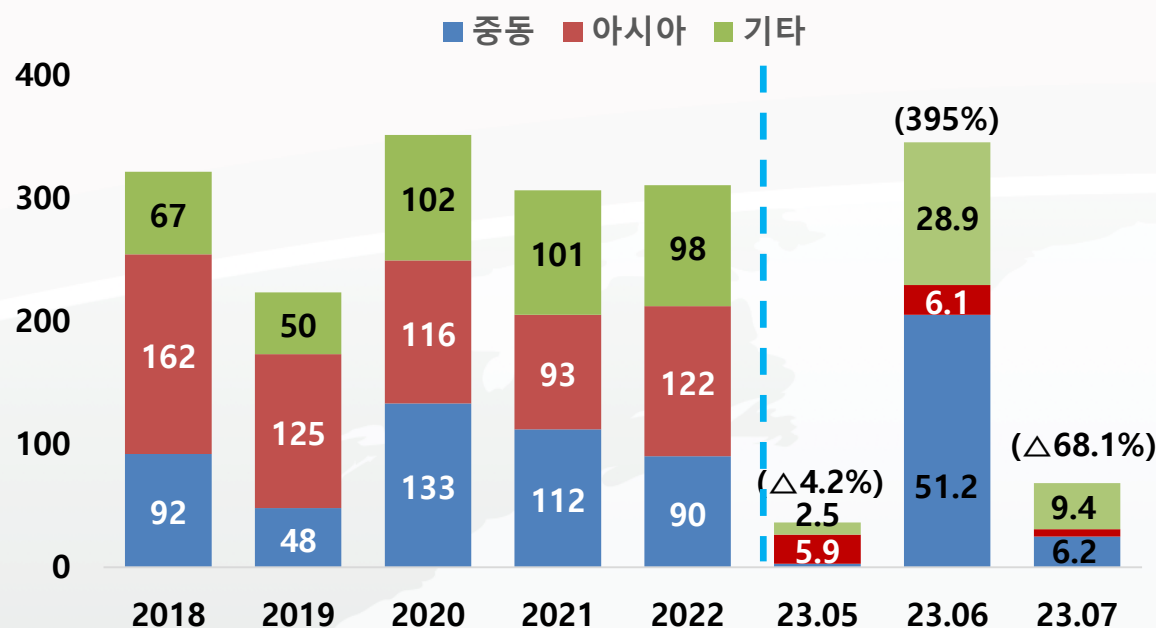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자료 : Clarkson

■ 7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68.1% 감소한 17.1억 달러

- (지역별) 7월 수주액은 중동 6.2억 달러, 아프리카 2.7억 달러, 북미 2.4억 달러, 유럽 2.2억 달러, 중남미 2.1억 달러 순
- (공종별) 플랜트 11.2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Delta 6.7\%$), 건축 1.3억 달러($\Delta 95.4\%$), 토목 4.8억 달러 ($\Delta 48.9\%$),
- 7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19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.2% 증가한 상황으로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97.3% 증가한 72.4억 달러, 북미 수주액은 53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7.9% 증가
 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92.1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72.5%), 건축 65.2억 달러 (9.4%), 토목 13.2억 달러($\Delta 64.9\%$)를 기록
- 미국 IRA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7월까지 미국 수주액은 51억 달러를 기록 중이나,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아시아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48% 감소 중
 - 미국 IRA 시행으로 리튬 배터리 및 태양광 공장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북미 지역 수주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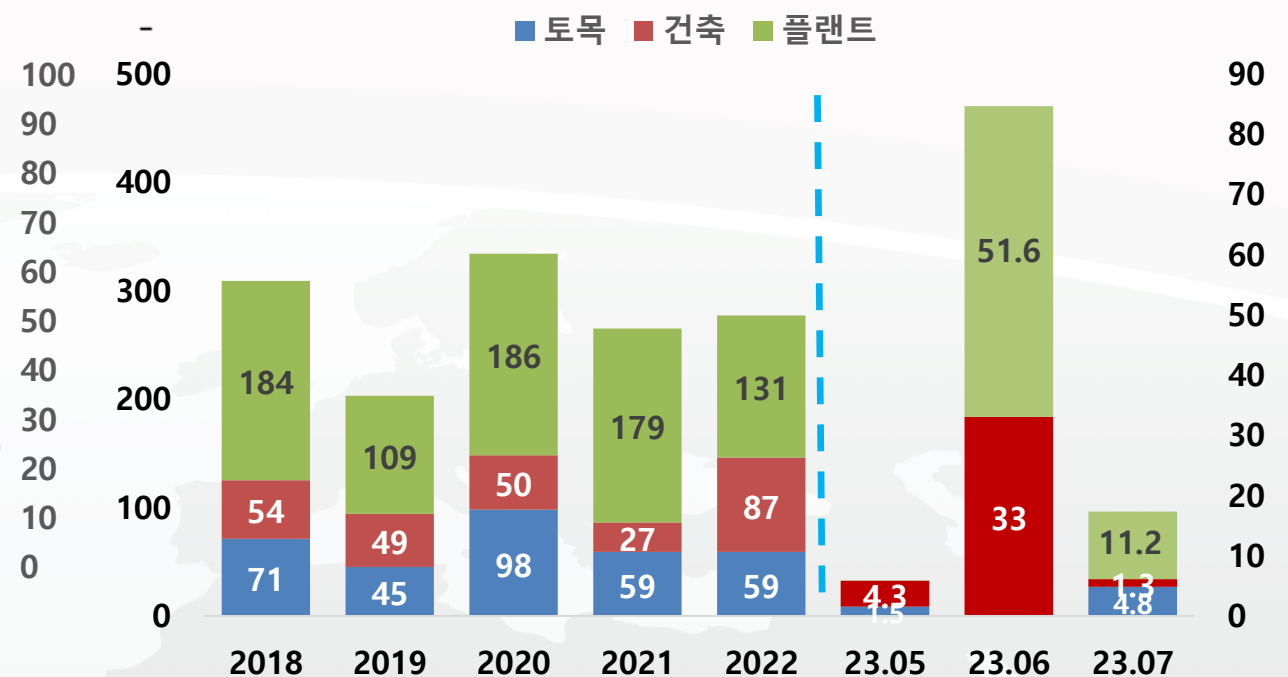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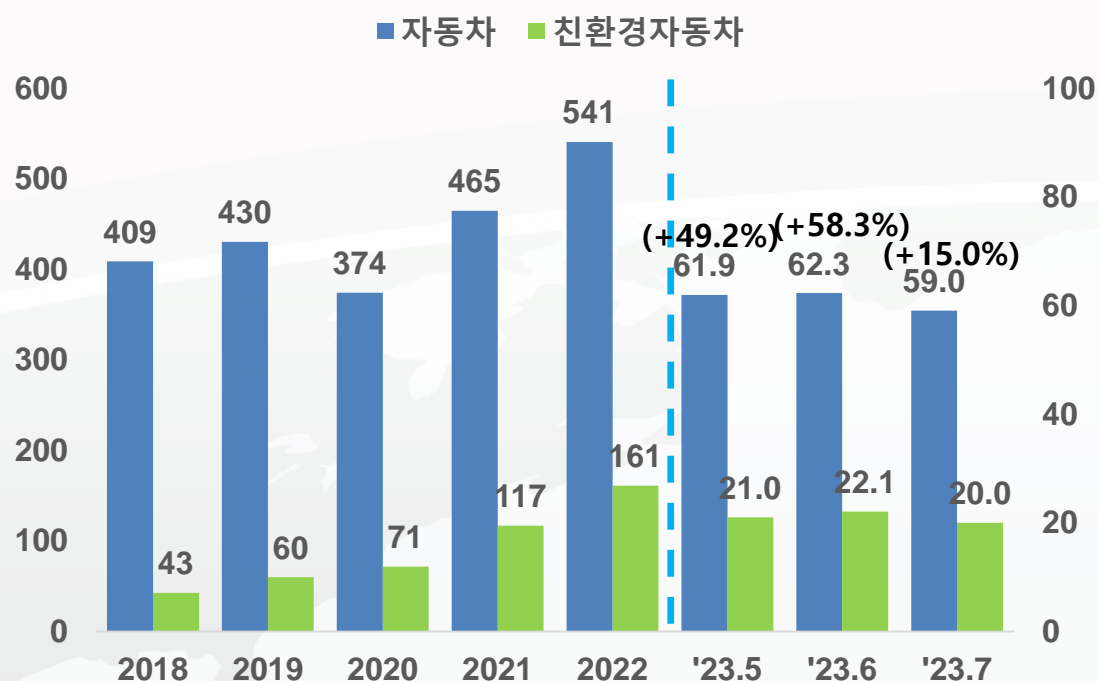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■ 7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59.0억 달러, 20.2억 달러 기록

- **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5.0% 증가한 59.0억 달러,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36.0% 증가한 20.0억 달러 기록**
 - 자동차 수출액은 SUV, 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 차량 수출호조가 지속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
 - 하이브리드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5.1% 감소하였음에도 순수전기차 수출액이 58.2% 증가하며 친환경자동차는 성장세 지속
 - * 친환경 자동차 수출액 비중 : ('22년 7월) 28.7% → ('23년 5월) 33.9% → ('23년 6월) 35.5% → ('23년 7월) 33.9%
 - * 친환경 자동차별 수출 비중('23년 7월 대수 기준) : 순수전기차(45.8%), 하이브리드(42.8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(11.4%), 수소전기차(0.01%)
- **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0.5% 감소한 20.2억 달러**
 - 자동차부품 대 유럽 수출액은 11.6% 증가하였으나 대 북미 및 대 아시아 수출액은 각각 3.1%, 1.4% 감소
 - * 자동차 부품 대륙별 수출 비중('23년 7월) : 북미(35.6%), 아시아(24.7%), 유럽(23.2%), 중남미(12.1%), 중동(3.6%)

자동차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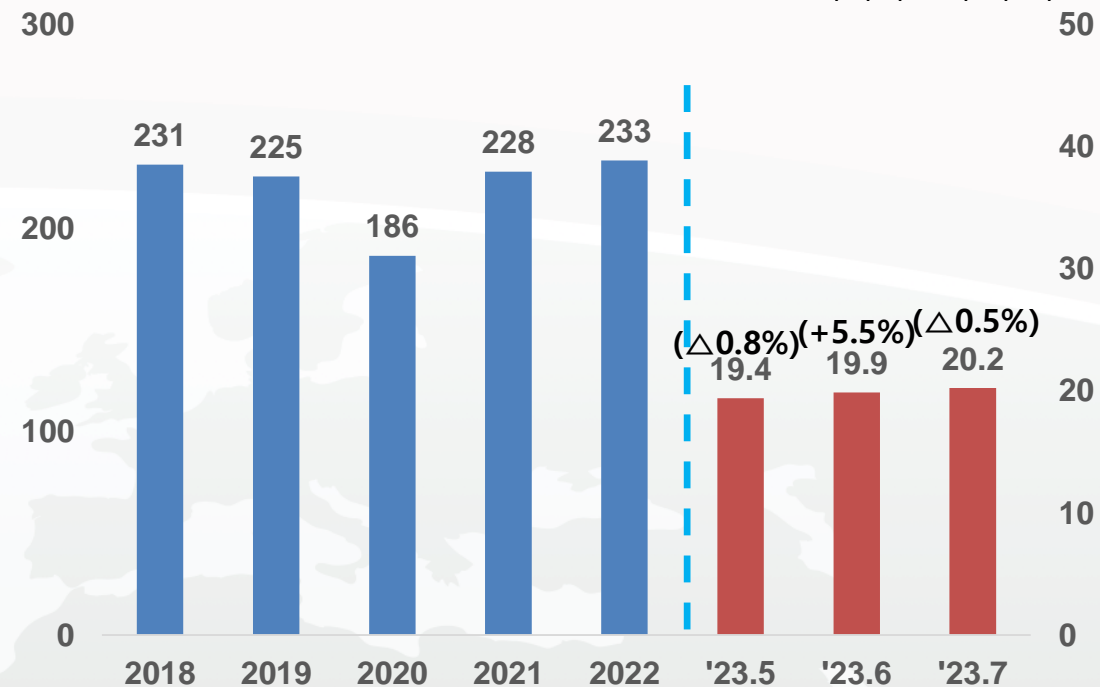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자동차부품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33.7%, △5.4% 기록

•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3.7% 감소한 75.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

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수요둔화, 재고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.7% 감소한 36.0억 달러 기록

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7)2.88 → ('23.4)1.45 → (7)1.34 (트렌드포스)

*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 : ('22.6)347.7 → ('23.4)290.8 → (6)422.8 (한국은행)
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IT기기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5.9% 감소한 34.7억 달러 기록

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% 감소한 26.3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% 감소한 8.2억 달러 기록

*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7)91.2 → ('23.4)78.9 → (7)75.0 (한국은행)

•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.4% 감소한 18.9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역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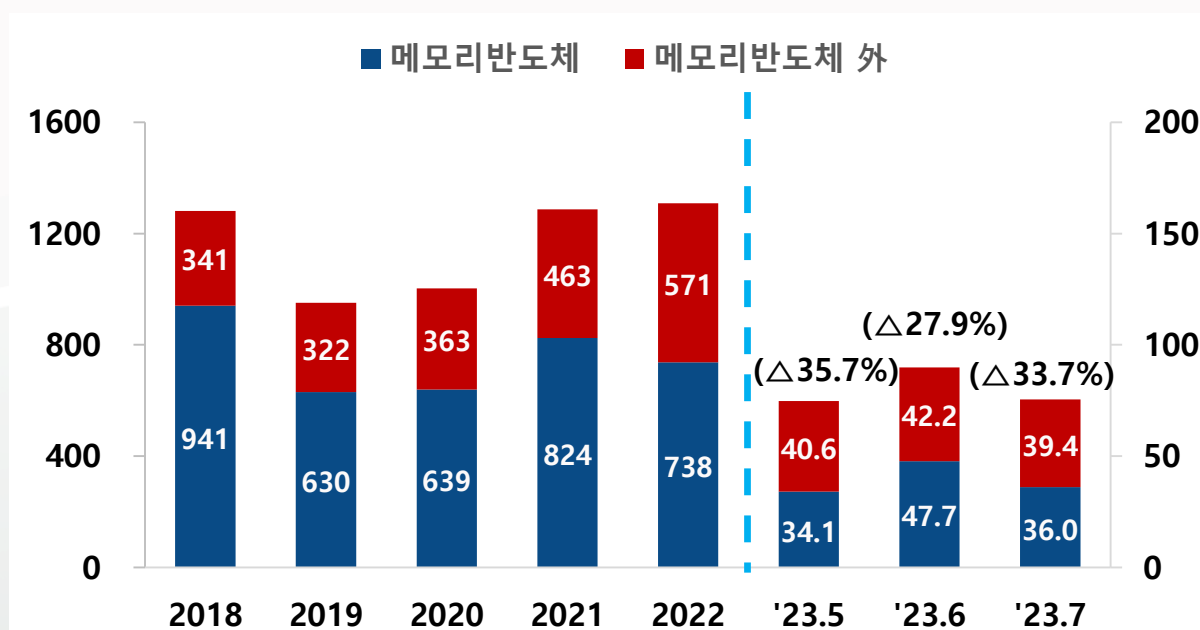
- OLED 수출은 TV와 IT기기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.2% 감소한 12.5억 달러 기록

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7)53.9 → ('23.4)51.3 → (7)49.2 (한국은행)

- LCD 수출은 LCD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.2% 감소한 4.0억 달러 기록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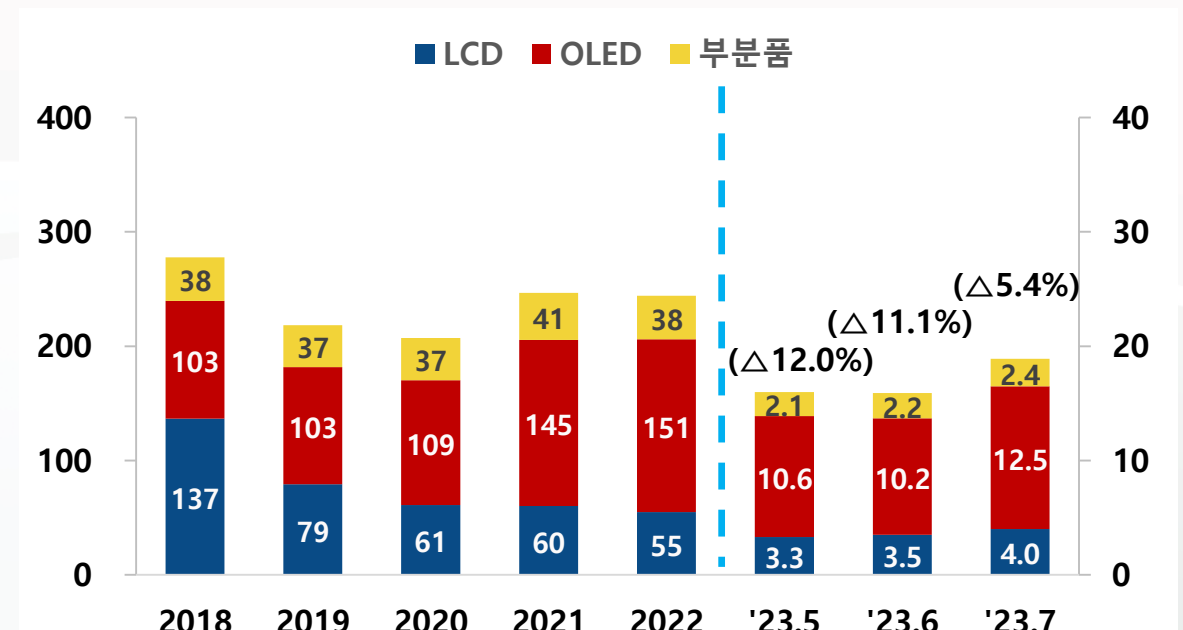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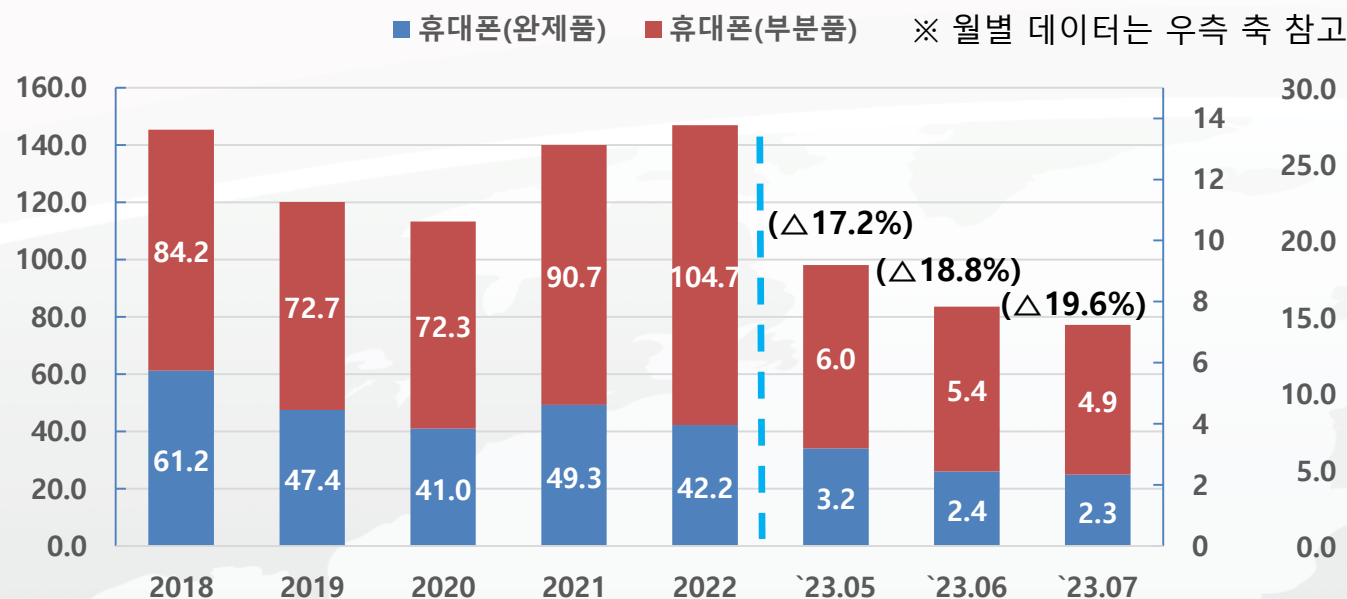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7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19.6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27.7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은 유럽의 수요 둔화와 중국 경기 악화로 전년동월 대비 19.6% 감소한 7.2억 달러 기록**
 - (완제품) 對미국·중동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의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 대비 22.4% 감소한 2.3억 달러 기록
 - *주요 수출 지역인 對유럽 7월 수출액은 0.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9.1% 감소, 북미(1.1억 달러, +38.0%)와 중동(0.2억 달러, +534.4%) 수출은 증가
 - (부분품) 중국의 완제품 수요 부진 등으로 주요 생산기지의 부품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18.2% 감소한 4.9억 달러 기록
 - *'23년 7월 베트남으로의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7.8% 감소, 對중국 부분품 수출은 전월('23년 6월) 대비 26.5% 감소
- **통신장비 수출은 중계기·모뎀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27.7% 감소한 1.24억 달러 기록**
 - (기지국 장비) 미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11.2% 감소한 0.12억 달러 기록
 - * 對미국 기지국 부품 수출액은 100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4.7% 감소, 對인도 수출액은 693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0.9% 증가
 - (중계기·모뎀)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29.2% 감소한 1.11억 달러 기록
 - *주요국 중계기·모뎀 및 부품 수출액: 미국(1,318만 달러, 전년 동월 대비 △71.5%), 베트남(3,475만 달러, +15.1%), 일본(1,616만 달러, +57.1%)

휴대폰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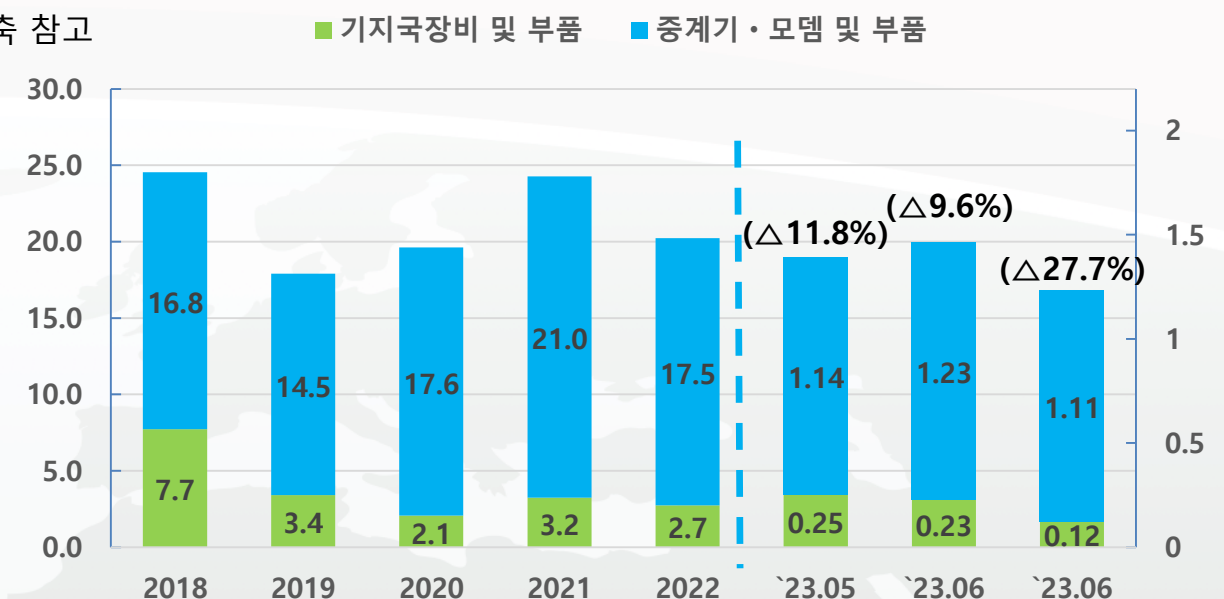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
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